해설 프로그램–자연해설(자연의 숨소리와 함께 걷는 구천동어사길)

1. 목적 및 배경

○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한 해설을 통해 국립공원의 역할을 주제로 해설 프로그램 운영,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일반해설

○ 프로그램명 : 자연의 숨소리와 함께 걷는 구천동 어사길

○ 대　　상 : 전 연령, 50명

○ 운영기간 : 연중, 9시/13시

○ 운영형태 : 3시간/회

○ 장　　소 : 덕유산국립공원 구천동어사길 일원

○ 주요내용 : 테라피 및 명상을 통한 구천동 어사길 느끼기, 덕유산의 나무와 기암괴석을 다룬 스토리텔링과 함께 트레킹

○ 소요예산 : 1백만원

○ 참 가 비 : 무료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홈페이지 공고, SNS홍보 등

○ 참가자 접수 방법 :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예약 및 유선 접수

○ 사업성과 홍보 : 페이스 북 홍보(4월~10월, 2회), 보도자료 제공(2회)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본사 주관 온라인 만족도 조사

첨부 1.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2. 현황사진 2장 원본(각 사진 용량 3MB 이상)

프로그램

자연의 숨소리와 함께 걷는 구천동 어사길

활동장소	덕유산국립공원 구천동어사길일원
소요시간	180분
참가대상	학생 및 일반인(제한없음)
참가인원	20명 / 해설사

활동목표	• 구천동계곡을 통해 역사문화와 생태계를 이해시킴으로써, 탐방객의 무분별한 계곡 이용 문화 개선 및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 제고 •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한 해설을 통해 국립공원의 역할을 주제로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함 •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도록 함
준비물	• 구급약, 명상·테라피 관련 교구재, 카메라, 휴대용 마이크 등
유의사항	• 사전에 참가대상의 유형에 대해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 탐방로에 들어가기 전 안전 및 주의사항을 숙지한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덕유산국립공원 구천동어사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참여 대상자와 관련 구천동 어사길 이야기 -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 전달 및 산행전 스트레칭	20분
전개 (테라피·명상 및 활동)	• **구천동 어사길에서 만난 청렴의 대명사** - 소설 "어사 박문소전" 구천동 설화 이야기 - 덕유산의 구천동 계곡과 물이야기 - 하루 중 가장 청렴한 시간(09:30~12:00)에 흐르는 계곡을 바라보며 지친 마음과 몸 치유하기(테라피) • **구천동에서 나를 발견하다** - 지혜의 문, 소원성취의 탑, 겸손과 비움의 문, 신선의 문으로 통과하며 알아보는 구천동 어사길 스토리텔링과 어사길 박문수가 걸었던 경관 감상 - 자연을 느끼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명상) • **천혜의 자연 환경 구천동 어사길** - 덕유산의 로빈스 크루스 이야기 등 원시림의 나무와 기암괴석에 다른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트레킹하기 - 구천동 계곡 상류의 지나며 보이는 원시림과 구천동 계곡을 감상하며 이야기 나누기	14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활동내용 및 느낌 나누기** • **설문 및 평가를 통한 마무리 인사**	20분

시나리오

덕유산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덕유산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스트레스에 지친 심신을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자연을 느끼시면서 한방에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자연환경해설사 ooo입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천동 어사길을 걸으면서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조선시대에 청렴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분이신 어사 박문수의 스토리텔링과 함께 자연을 느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과 덕유산 역사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천동 어사길 코스는 저지대의 완전한 코스로 누구나 접근성이 용이하며 어사길 바로 옆으로는 금강모치가 살고 있는 깨끗함과 맑음의 대명사인 구천동 계곡이 흐르며 구천동 33경의 수려한 경관이 50년간 훼손되지 않은 총 길이 3.3km의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된 곳입니다.

탐방로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합니다. 자연의 주인은 덕유산에 살고 있는 동·식물입니다. 우리는 손님된 입장으로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되겠죠!

두 번째, 큰소리를 내거나 옆 사람과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우선 동·식물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향을 받게 되고, 해설을 듣는 친구나 동료분들께 피해를 주어선 안 되요.

세 번째, 원시림 모습을 간직한 구간으로 주변 야생진드기, 벌, 뱀, 곤충 등에 주의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혹시나 다치시게 된다면 바로 이야기해주세요. 여기 구급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이어, 산행 전 스트레칭을 실시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실시)

몸에 근육이 좀 풀린 것 같나요? 그럼 어사길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GOGOGO!!! 저를 따라 조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전달사항



프로그램 전 스트레칭

구천동 어사길에서 만난 유명 인사

구천동 어사길 1구간인 청렴의 길입니다. 제1구간은 구천동어사길 초입구에서부터 인월담까지이며 0.8km의 거리는 약20분 동안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사시사

철 맑고 차가운 계곡물이 흐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계곡인 구천동 계곡에 옛 명인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누구신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무엇이었죠? 예 맞습니다. 구천동 어사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선시대에 어사로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 데 누구실까요? 어사 박문수입니다. 어사 박문수하면 현재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암행어사의 대표적인 조선후기 영조 때의 인물로 부정부패 지방 관리들의 염라대왕으로, 백성들에게는 한줄기 빛의 영웅으로 후자 되는 비리를 척결하고 청렴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어사 박문수가 이곳 무주에 온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무주 구천동이란 이름은 행정구역상 지명에는 없습니다. 구전설화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구천 명의 스님들이 머물며 수도를 했다 해서 구천동(구천둔) 이라 전해지는 것과 구씨와 천씨가 모여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해서 구천동이라 전해지는 암행어사 박문수뎐이라는 소설에 등장합니다. 암행어사에 선발되어 충청도, 경남도를 거쳐 전라도로 넘어오는 도중 덕유산계곡의 아름다운에 취해 시간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하다 해는 떨어지고 어둠에 덮인 험한 산길을 헤매다가 등불을 찾아 어떤 집에 이르니, 한 노인이 단도를 들고 젊은 아들 배 위에 올라가 ' 이 놈 죽어라, 이 놈 죽어라'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누운 사람은 반항도 하지 않고 '다만 죽겠습니다.'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에 어사 박문수가 자세한 사연을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글방의 훈장인 유안거이고 그 아들은 유득주 인데, 유 씨 가족 외에 구씨와 천 씨만 살아 이곳을 구천동이라 부른다고 했다. 고향인 한양에서 이곳에 내려와 이 동네의 구화선 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농사는 지어보지 않아 할 수가 없고 글방을 차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게 되었다. 유 안거 이웃에 천운서와 그의 아들 천동수 부자가 사는데, 천동수의 처가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 득주와 이번에 간통했다는 혐의를 씌우고 우리 집 부녀를 탈취하려 합니다. 내 아내 최가는 천운거가 탈취하고, 내 며느리는 천동수가 탈취하여 혼례를 올린다는 것인데 그 혼례일은 내일입니다. 오늘밤이 지나면 천가 부자가 와서 신부를 내놓으라고 할 것이니 강약이 부동으로 저희 하자는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욕을 앉아서 당하느니 차라리 한 칼로 내 자식을 죽이고 아내를 죽인 후에 나도 죽으려 하니 공은 어서 떠나시오."라고 말을 하니 이에 박문수는 "내일 혼례 하는 시간이 어느 때쯤이나 되겠소?"

"신시 초(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가 될 것입니다."

"주인은 염려 마시오. 내 이 길로 나갈 것이며 내일 신시가 되기 전에 좋은 소식을 전하리다."

이 말을 들은 박문수는 유안거를 안심시킨 뒤, 칠 십리 밤길을 달려 무주읍에 당도하였다. 그리고 군수를 시켜 광대들을 대령케 하고 그 중에서 땅재주 잘 하고 용감한 자 네 명을 골라 각각 색깔이 다른 군복을 지어 입히고 자기도 군복으로 갈아입은 후 덕유산으로 향하였답니다.

신시가 다가오자 천가 부자가 유안거의 집으로 들어와 늙은 최 씨 부인과 그 며

느리 김 씨 부인을 붙잡아 앉히고 혼례를 올리려 하니 구천동 사람들이 일시에 구경하러 모여들었어요.

이 때 신장 하나가 교배 청으로 들어가 좌정하더니 교배 상을 벼락같이 치며 도방 청제 대장군을 부르자 공중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며 한 신장이 마당 가운데로 떨어져 동쪽에 비켜서는 것이었다.

"서방 백제 대장군!" 중앙 신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또 한 신장이 마당으로 떨어져 서쪽으로 서는 것이었다.

"남방 적제 대장군!" 다시 대답 소리가 공중에서 들리며 한 신장이 떨어져 남쪽으로 비켜섰다.

"북방 흑혜 대장군!" 이번 신장은 북쪽으로 비켜섰다.

"나는 중앙 황제 대장군으로서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이곳에 왔다. 상제께서 무주구천동에 괴악한 두 사람이 있으니 잡아 바치라 하셨기에 내 여러 신장을 불렀으니 사방 신장은 합력하여 이 중에 사모 관대한 두 사람을 잡아가라."

천운서 부자에 의한 폐륜적인 혼례가 치러지기 직전,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오방신장이 들이닥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운서 부자를 잡아 깊은 산골로 끌고 가 크게 호통을 치며 "너희 부자는 어찌하여 패악한 일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이 길로 염라대왕에게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앞으로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느냐" 하자 천 씨 부자가 벌~벌 떨면서 크게 깨우치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유씨 부자에게 찾아가 사과를 했다.

10년 후 박문수가 삼남어사(三南御史) 자격으로 다시 구천동을 찾아가니 예전에 보지 못하던 커다란 기와집이 한 채 있고, 유안거가 그곳에 살고 있었다. 유안거가 박문수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하는 말이, 10년 전 천가 부자가 옥황상제에게 잡혀간 뒤 동민들이 '저 집은 곧 하늘이 아는 집이다'라고 하며, 이 집을 지어준 뒤 해마다 곡식을 갖다 바쳐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길 옆에 따로 집을 한 채 지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쉬어가는 장소를 제공했다.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옛날 분들은 순수하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해 하셨을 까요? 구천동 계곡물처럼 순수하신 무주 지역 분들에게 모든 만물을 깨끗이 정화는 물처럼 나쁜 상황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네요!

길을 따라 걷다보면 옆에 보이는 덕유산 구천동 계곡에는 우리나라 토종물고기로써 기후환경지표종인 금강모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구천동 계곡이 수량이 풍부하고 계곡이 넓고 커서 금강모치와 더불어 맑은 구천동계곡의 생태계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습지식물(고마리, 동의나물, 물질경이 등)이 있어서 물을 정화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구천동 어사길에 오시면 청정공기를 맡을 수 있어 해설도 듣고 몸에도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금강모치 및 습지식물 소개

하루 중 가장 청렴한 시간 계곡을 바라보면서

몸에 좋은 효과를 한번 느껴보도록 할까요? 이곳은 구상나무 학습장입니다.
맑은 공기와 함께 몸을 건강하게 하는 테라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라피를 통해 아름다운 얼굴과 건강한 몸의 균형을 만들고 얼굴의 다양한 불균형 요소를 바로잡아 건강은 물론 미용으로 통해 처진 살과 주름을 없앨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특히 몸의 축약판이라 할 수 있는 혈 지점을 자극을 주어 온몸의 독소를 제거하면 더욱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으니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테라피 체험

테라피를 끝내고 계속 해서 구천동 어사길을 탐방로 하도록 할께요~
계속해서 가다보니 구천동 어사길 안에서 구천동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문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반겨주고 있는 "인월담" 구천동계곡은 라제통문 ~ 덕유산 향적봉에 이르는 약 28km로 흐르는 계곡의 기암괴석과 원시림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이 소(沼), 담(潭)과 폭포가 되어 우리나라 경승지 중 가장 아름다운 구천동 33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제1경인 라제통문 ~ 제15경 월하탄까지를 외(外)구천동으로 불리고, 제16경 인월담부터 구천동으로 들어가는 내(內)구천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월담에서 바라 본 바위에 '구천동 문'이라

는 한자가 새겨져있는 것을 볼 때 그 숨을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인월담은 신라시대 인월화상이 인월보사를 창건하고 수도한 곳이라 하여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달빛 아래로 쏟아지는 은빛 같은 맑은 여울은 보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는데, 사람과 달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인월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인월담 안내

어느 덧 1구간 마지막 구간인 인월담으로 청렴의 길을 지나고 어사 박문수가 지나갔다는 3가지의 문이 있는데요. 3개의 문을 지나면서 여러분도 옛 선인의 지혜를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구간으로 이동해볼까요? GO!GO!GO!

		
1번째, 지혜의 문	2번째, 겸손의 문	세 번째,신선의 문

제2구간은 인월담에서 구월담까지 약0.8Km이며 소요시간은 약 20분 소요가 됩니다. 2구간으로 겸손과 비움의 길에 가기 전에 지혜의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 애기를 듣고 지혜의 문을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옛날 구천동계곡의 성질이 고약한 사자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자는 구천동계곡으로 가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길에 커다란 바위를 놓고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곡식과 고기, 심지어는 아이까지 내놓으라며 심술을 부리며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자의 괴롭힘에 지쳐갔습니다. 그 때 마을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한 아이가 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사자님, 사자님~ 사자님이 그렇게 힘이 세다면서요?”
“크흐흐~ 암, 그렇지. 내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고말고!!”

"에이~ 설마요. 사자님이 힘이 세도, 세상에서 힘이 제일 셀 리가 없잖아요~"
"뭐야!! 이 쪼그만 놈이! 내가 세상 누구보다도 힘이 세다!!!"
"그래요? 저도 우리 동네에서 힘이 제일 쎄요. 저~ 기 아래 바위를 손으로 내리쳤더니 두 쪽이 났거든요. 사자님은 저 바위를 쪼갤 수 있어요?"
"뭐? 앞에 있는 이 커다란 바위를 쪼개보란 말이냐?"
"네. 저는 쪼그만 어린 아이니까 이 바위보다 조금 작은걸 쪼겠지만, 사자님은 덩치가 엄청 크시니 이 바위를 쪼개면 되겠어요. 만약에 사자님이 이 바위를 쪼개지 못 한다면 제가 사자님보다 힘이 더 센 거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센 건 사자님이 아니라 바로 나겠네요!!"
"아냐! 나도 이 바위를 쪼갤 수 있어. 나는 꼬리 하나면 충분하다!!"
"에이~ 설마요, 안 될 거 같은데요.."
"이놈이!! 잘 봐라~!!!"
사자는 긴 꼬리로 커다란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때 "쩍!!"하는 소리와 함께 큰 바위가 둘로 쪼개지면서 사자의 꼬리가 계곡으로 뚝~ 떨어져나갔습니다. 깜짝 놀란 사자는 계곡에 떨어진 자신의 꼬리를 찾기 위해 고개를 숙였고, 지혜로운 아이는 꼬리를 계곡에서 멀리 떨어뜨리며 다시는 사자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 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지혜로운 아이로 인해 커다란 바위가 둘로 쪼개지고, 마치 문처럼 생겼다하여 "지혜의 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말도 있고, 그 문을 지날 때 마다 지혜로워진다하여 "지혜의 문"이라고 불린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문 옆으로 위를 보면 소원성취의 탑이 있는데요. 사자담의 맞은편에 위치한 이탑은 옛날 구천동에 살고 있던 사자의 모습을 보고 돌탑에 돌을 올려놓고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지혜의 문을 열어준 고마운? 사자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계곡에서 쉬고 있는 듯한 사자의 형상의 기암을 감상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심으로 너무 큰 소원을 빌 경우에는 문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꼭 실현 가능한 소원을 빌어주기 바래요~
계속 해서 굴참나무와 떡갈나무 등 참나무들을 쭉 지나가면 철길로 이루어진 길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 허리를 숙여서 우리를 반겨주는 사연 많은 소나무가 떡 하니 있습니다.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 덕유산의 봉우리 중 경관이 뛰어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소나무 한그루가 있었습니다. 소나무의 모습이 어찌나 멋진지 멀리서 바라보나, 가까이에서 보나 소나무를 본 사람들의 감탄이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멋지고 늠름한 모습과 달리 자기밖에 모르고,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는 건방지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소나무를 보러 온 사람들 때문에 주변 나무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나무만 보고 가면 되는데 서로 보겠다고 다른 나무들의 뿌리를 밟고, 어떤 나무는 소나무 옆에서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를 부러트리기도 하고, 행여 주변에 예쁜 꽃이 피어있으면 죄다 꺾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주변 나무들의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는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 잘난 모습만 뽐낼

뿐이었습니다. 그걸 본 덕유산 산신이 "이 오만방자한 소나무를 보았나!!" 라고 이야기했지만, 소나무는 콧방귀만 뀌고, 자기 모습을 치장하기에 바빴습니다.
"네 이놈! 소나무야. 산 정상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겠구나!"
"전 어디에 있든 멋진 모습일 테니 상관없습니다."
"어허~ 그래도 이놈이! 너는 구천동계곡 근처에 내려가 볼품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라!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수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심과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항상 고개를 숙이거라!"
그 후 멋지고 늠름한 모습의 소나무는 볼품없고 가느다란 가지만을 남긴 채 청류동 근처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한심하게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고,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겸손의 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겸손의 문

어사 박문수가 다녀갔다는 마지막 남은 문은? 그렇죠!~ 바로 신선의 문입니다.
다연대와 비파담을 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신선의 문이 있습니다. 마치, 구천동계곡을 지키는 듯 한 커다란 거북이바위는 신선으로 가는 길에 "덕(德)을 쌓았느냐?"라고 묻고 있으며, 지혜와 겸손을 갖춰 들어온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묻고 길을 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바위로 말할 것 같으면, 원래는 바위가 아니라 다연대에서 신선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노닐 던 신선들이 타고 다니던 거북이였습니다.
그 날도 신선들과 함께 다연대에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호기심이 발동한 거북이는 비파담에서 비파를 연주하며 목욕을 하는 선녀를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목욕하는 선녀의 모습에 반한 거북이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훔쳐보다 신선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야할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북이를 찾던 신선 눈에 목욕하는 선녀를 훔쳐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한 신선이 크게 노하였습니다.
"네 이놈, 거북아!! 네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죄.. 죄송합니다. 신선님."

"네가 아직 덕이 부족한 게로구나! 너는 덕을 더 쌓을 때 까지 이 계곡에 남아 있거라!"

"예. 신선님"

그 후 거북이는 구천동계곡에 한 자리에서 수 십, 수 백년 동안 덕을 쌓으며 그 자리를 지키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바위가 된 거북이는 비파담과 다연대를 가기 전 최종 문지기로 자리를 잡으며 덕을 쌓은 자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덕을 묻는 마지막 문지기 역할을 하며 구천동계곡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문에 걸쳐서 이동을 해보았는데요. 지혜의 문, 겸손과 배려의 문, 신선의 문을 지나오신 여러분은 지혜와 겸손으로 모든 일을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청렴의 길에서 받았던 테라피를 하면서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치유하셨죠! 지금부터는 청렴해진 숨결을 느끼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숲에 오니 일에 지쳐 피로했던 마음을 진정할 수 있으셨을 텐데요. 흐르는 계곡 물 소리, 새가 노래하는 소리,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 나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숲이 주는 다양한 소리와 향을 느끼면서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숲 속에서 들리는 소리 경청) 자, 이제 눈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셨나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 나무에서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적게는 3가지 소리부터 많게는 10가지가 넘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일상에 지쳐서 듣지 못했던 소리, 일상에서 들을 땐 짜증났던 새 울음소리마저도 노랫소리로 들리지는 않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짜증나는 일, 답답했던 일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숲에서 잠시라도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하면 또 한주를 보내시는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구천동 어사길에 오셔서 마음의 위로, 치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천동 어사길의 유명인사 '어사 박문수' 이야기부터 지혜, 겸손, 비움의 문에서 지혜를 터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상&휴식

덕유산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로빈슨 크루소를 아시나요? 로빈슨 크루소는 28년간에 걸친 무인 고도에서의 생활을 했다는 문학작품입니다. 실제로 덕유산에 세상과 평생을 단절하고 지내다 알려지게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덕유산 로빈슨 크루소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63년 덕유산 꼭대기에서 약초를 캐던 길관수씨는 인기척에 까무러치도록 놀랐습니다. 웬 여인이 산나물을 캐고 있었습니다.
덕유산 너머 경상남도 어느 마을에서 산나물을 캐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두사람은 이렇게 해서 쉽사리 만났고(그때 나물 캐던 여인이 현재의 길씨의 부인 이노파이세요.) 곧 이어 신세가 비슷한 둘은 동거생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대 한가지 난점이 생겼습니다. 길(吉)씨는 생식을 하는데 이대길(李)여인은 생식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길씨는 생식을 중단키로 했고, 집도 동굴에서 나와 양지바른 산비탈에 통나무를 엮고 흙을 발라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온으로 옷가지와 이불도 장만하고 마을에서 암탉 1마리와 수탉 1마리를 사 길렀습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무주군 당국에서도 이들을 돕기로 하고 매월 약간의 밀가루와 보리쌀을 보내줬습니다. 이제 이들 부부는 더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새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밭도 더 넓히고 시도 뿌리고 가을이면 호박과 박도 거두었습니다.
비록 옥수수와 고구마 그리고 조밥을 먹을망정 떳떳한 자급자족 생활이었습니다. 더욱이 마음이 편해 더 바랄게 없는 상황이었고, 이 늙은 신혼부부는 낮이면 밭을 갈고 밤이면 옛날 애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지난 65년부터는 경찰에서도 자주 길노인의 통나무 굴집을 찾아 모든 걱정을 해주는가 하면 이 두노인을 상대로 반공교육과 계몽을 실시, 지리산으로 통하는 덕유산 일대에 나타나는 낯선 사람을 신고토록 하고 조난자를 구하는 역할을 도맡게 했습니다.

길 잃은 포수와 등산객의 유일한 구세주가 됐고 무려 30여명의 인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만 지내다 보니 눈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광채가 나고 고양이의 눈을 닮아갔습니다. 그 밖에 건강은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비록 고기는 못 먹고 호의호식은 못할망정 마음이 편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데다 산채와 약초를 먹고 여름철이면 뱀까지 먹으니 건강이야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드리 통나무를 젊은 사람들 보다 더 많이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오던 길노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앞으로 30년은 더 살테니 자주 만납시다. 허허" 말씀하십니다 ~ 이때가 70년 2월 1일호 선데이서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길노인은 고향은 평안북도, 공산당이 싫어서 해방되던해 단신 남하한 길씨는 강원도 경기도로 떠돌아 다녔다. 6.25동란 다음해인 51년 길씨는 벌채 인부들

틈에 끼어 처음으로 무주구천동에 발을 디뎠습니다.
벌채가 끝나고 동료 인부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떴으나 웬일인지 길씨는 구천동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 병풍속의 한폭 그림같은 대자연, 바람과 산새 소리뿐인 고요, 이런 것들이 길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의 모략, 배신, 속임수 들이 없는 이런 곳에서 한평생을 보내기로 길씨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길시는 양지바른 바위 틈에 움막을 치고 그해 여름을 났습니다.
산풀을 깍아 말려 이불과 욜를 만들고 동료들이 주고 간 식량과 부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낮에는 편편한 산 비탈을 파고 갈아 오는 봄의 파종에 대비했고 밤이면 말린 풀을 역어 겨우살이 준비를 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고, 길씨는 우선 이웃 동굴속으로 집을 옮기고 생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달동안은 소화가 안되고 이가 시리는등 부작용이 있었으나 곧 괜찮아졌습니다. 겨울에는 짐승의 왕래가 잦은 곳에 땅을 파고 함정을 만들어 멧돼지를 잡고 약초와 나물 등집 채집하여 인근 마을에 팔기도 했습니다. 또 겨울이 오고 길씨가 파놓은 함정 근처에서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밤을 재니고 아침에 가보니 멧돼지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 호랑이가 죽어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만 하더라도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듯이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 덕유산 국립공원입니다.
그곳에서 정말이지 대단한 삶을 살아오셨네요!
여러분들도 덕유산의 로빈슨 크루소처럼 덕유산에서 생활하실 수 있으신가요?



덕유산 로빈슨 크루소 길관수님과 아내 이대길 여사님

이와 같이 3구간에는 덕유산 국립공원에는 50년간 훼손되지 않은 3.3Km에 다라는 원시림과 기암괴석이 있는 곳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3구간은 구월담에서 안심대까지 1.7Km 거리로 약 4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계곡의 상류 양쪽은 무성한 삼림으로 마치 숲 터널 속의 계곡으로 보일 만큼 깊숙한데요. 형형색색 무늬의 암반이 맑은 물에 잠겨 조화를 이루고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면 더욱 아름다운 마치, 붉은 비단위에 달 흐르는 듯한 구천동계곡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구월담(九月潭)은 월음령 계곡과 구천동계곡에서 흘러 나온 물이 합류하여 쏟아내는 폭포수가 담을 이룬다고 하여 구월담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월담의 숨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가을의 늦은 밤, 한 선비가 구천동계곡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칠흑같은 어두운 길이었지만, 그날은 커다란 보름달이 선비의 등이 되어 주 듯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벗 삼아 걷던 중 두 계곡의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잠깐 쉬며 술 한잔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밝은 달빛과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니 얼마 마시지 않은 술 기운이 돌았는지 피곤에 지쳐 잠이든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선비는 잠이 들었고 누군가의 인기척 소리에 놀라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선비는 눈 앞에 광경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달이 구천동계곡의 폭포수를 따라 여러개로 갈라져 흐르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라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떠있는 달은 1개인데 계곡에 비친 달은 여러 갈래로 갈리는 달이 보이니, "내가 술에 취한 것인가, 달에 취한 것인가" 하며 그날 본 풍경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마을로 전해지면서 여러 개의 달은 구천동계곡을 상징하는 숫자인 9(구)와 많은 수를 상징하는 숫자인 9로 전해지면서 구월담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월담을 시작으로 거문고 소리를 내는 포구의 계곡물이란 의미로 금포탄이 있는데요. 바람에 나부기는 수목들의 소리와 어우러진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계곡물 소리의 조화는 거문고를 타는 듯한 신비로운 음율을 이룹니다. 그뒤로는 호랑이라도 뛰쳐나올 것 같은 곳에 큰 바위가 겹쳐져 높이 솟아 있는 호탄암이 보이고요, 계곡물이 굽이굽이 돌아 내려가면서 호탄암, 금포탄을 지나 월음령 계곡과 합류하며, 구월담, 다연대, 비파담을 지나 청류동으로 흘러 내려가는 구천동계곡에는 여름에는 푸르른 녹음이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뒤덮여 장관을 이룹니다. 드디어 마지막 안심대가 보이는데요. 옛날 백련사와 구천동을 왕래하는 승려와 사람들이 쉬어 가는 곳으로, 계곡물의 물살이 빠른데 예전에는 건너가야 하였다고요 위험한데요... 이곳을 안심대라고 하게 된 연유는 여러 속설로 일관되지 않는데요, 계곡이 절로 넘어가는 길이니 안심하고 건너라는 뜻에서 안심대라고 하는 속설과 계곡의 중간의 큰 바위로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데가 있어 그 곳을 안심대라고 했다고도 하네요. 그뿐 아니라 이곳의 계곡물을 건너가면서 세상의 온갖 잡념, 시름, 갖은 번뇌까지 건너가고, 따라서 이곳에 이르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고하여 안심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더욱 정확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심대를 마지막으로 3.3km에 달하는 코스는 완주하셨습니다.

마무리

오늘 프로그램 어떠셨나요? 숲 속에서 동, 식물을 보고 배우는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숲에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환경이 보전되어야 오래토록 볼 수 있겠지요? 동, 식물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숲이 온전하게 보전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약속들이 하나로 모이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분리수거 하기 등 작은 실천 하나씩만 해주시면 숲이 아름답게 바뀌지 않을까요?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덕유산 구천동 어사길에 오셔서 여유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3시간 긴 시간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와주시면 더욱 더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구천동 어사길 생태관광

<현황사진>



